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 O R E A

Not just accessories



TODS.COM

8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예술을 한다는 것

지난 6월 25일 젊은 작가 안정주와 전소정이 서울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장미로 엮은 이 왕관'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전시를 열었다. 이들은 흑과 백이 교차하는 3개의 방에 각각 영상 작품을 하나씩 틀어놓고 관람객을 맞았다. 검은 새가 백조가 되는 과정을 그린 '카메라를 든 여자', 누드모델에 관련된 에피소드인 '누드모델', 어떤 현상 뒤에 그 현상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등 이날 공개한 영상은 실로 다양한 감상평이 나올 만한 작품이었다. 그중 하나가 '예술을 한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 그간 젊은모색(안정주)과 송은미술대상(전소정)으로 주목받아온 두 젊은 작가의 최신작이 궁금하다면 지금 아뜰리에 에르메스로 가보자. 전시는 8월 23일까지.

문의 3015-3248



싱글채널비디오(스틸) 작품인 '누드모델'



신진 건축가를 주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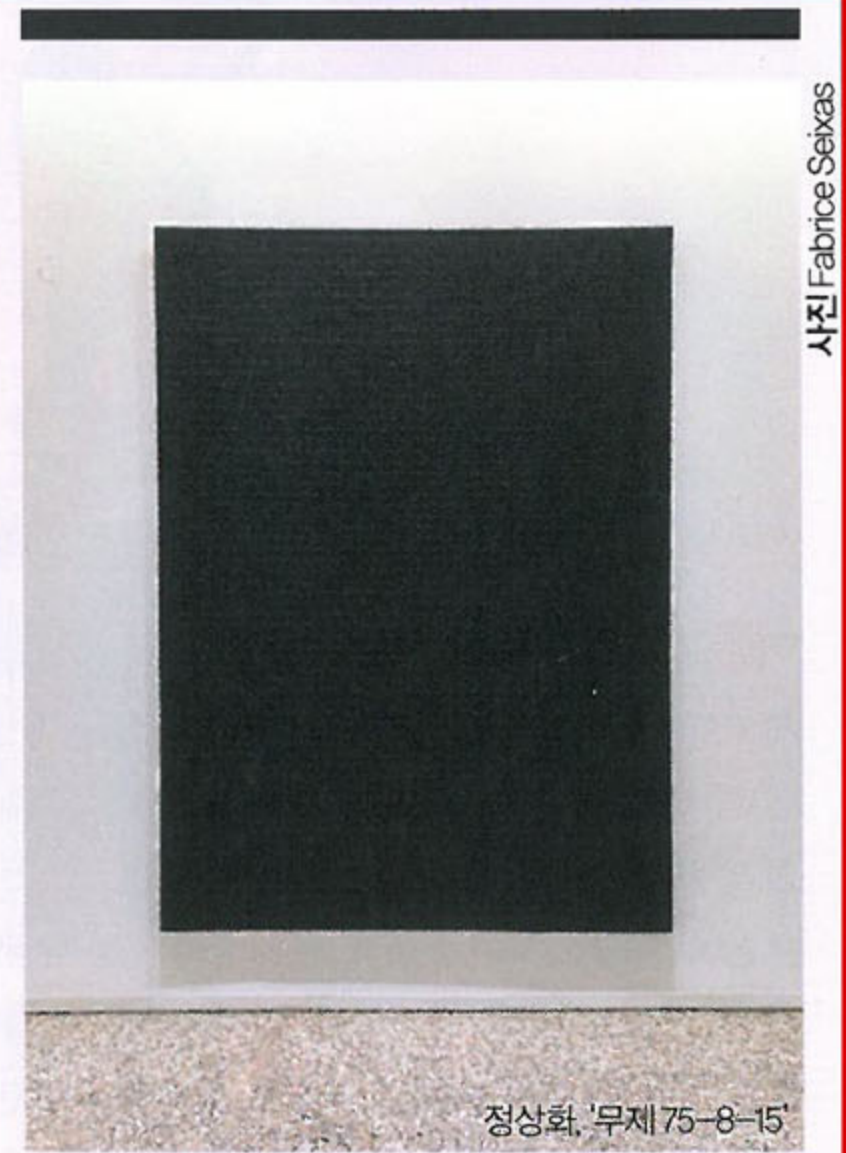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있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8_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는 국내의 젊은 건축가를 발굴해 프로젝트의 기회를 주는 공모 프로그램. 올해의 건축가로 최종 선정된 SoA(이치훈, 강예린)는 사라져가는 지붕의 느낌을 되살린 '지붕 감각'을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설치해 관람객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 밖에 최종 후보에 오른 국형걸, 네임리스 건축(나은중, 유소래), 씨티알플롯(오상훈, 주순탁), 건축사사무소 노션(김민석, 박현진)+빅터 장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문의 3701-9500

헨릭 뵘스코브의 '멀티플' 세계

덴마크 출신 멀티 아티스트 헨릭 뵘스코브(Henrik Vibskov)의 개인전이 대림미술관에서 12월 31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 지난 7월 8일 미술관 4층 전시장엔 작가의 오프닝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로 북적거렸다. 하늘거리는 천으로 만든 기다란 민트색 돌기가 벽과 천장을 뒤덮은 환상적 분위기에 서 헨릭 뵘스코브가 곡을 연주했다. '패션과 예술,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라는 부제처럼 전시는 그만의 독특한 창조성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놓았다. 2층에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선보인 의상과 함께 만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패션쇼 백스테이지를 재현했다. 3층에는 그가 아티스트로서 신체, 죽음을 주제로 만든 사진, 그래픽, 설치, 텍스타일 등을 한데 모았다. 거대한 생명체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4층은 전시의 하이라이트. 문의 720-0667



헨릭 뵘스코브의 오프닝 퍼포먼스 모습



정상화, '무제 75-8-15'

사진 Fabrice Seixas

단색화를 말한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병렬 전시로 열린 <단색화>전이 화제를 모았다. <단색화>전은 벨기에의 보고시안 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한 특별전으로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의 주요 작품 70여 점을 소개했다. 전시를 계기로 단색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한 서적 <Dansaekhwa(단색화)>가 출판됐다. 전시를 기획한 이용우를 포함해 구겐하임 미술관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 허시훈 현대미술관 관장 멀리사 추, 미시간 주립대학 미술사학과 교수 조앤 기, M+ 홍콩 문화박물관 학예실장 정도련, 미술평론가 윤진섭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미술 전문가의 원고와 타임라인, 심포지엄 녹취록 등이 영문으로 실렸다. 단색화를 해외에 알리고, 자칫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는 '단색화 열풍'에 내실을 다지는 좋은 자료로 손색없다.